광주도시공사, 찾아가는 복합지원 시범사업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3일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종합상담 서비스인 '찾아가는 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사업은 정부(금융위원회) 시범사업으로, 주거·금융·법률·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에게 생활 밀착형 맞춤 상담을 원스톱으로 제공했다.

특히, 생업 등으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입주민을 위해, 상담 인력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진행했다.

상담은 광주역 다사로움에서 진행되었으며, 공사 입주민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One-stop 이동복지 상담소를 기반으로 확대 추진됐으며,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총 12개 기관이 협업해 주거, 금융, 법률, 고용,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통합 상담을 제공했다. 최권범 기자

건협 광전지부, 금호익스프레스 건강캠페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지난 13일 금호익스프레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

14일 건협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뇌파·맥파 측정을 통한 스트레스 검사로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만성질환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검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개인별 건강 상태에 대한 결과를 통해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평소 소홀했던 건강관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 직원은 "평소 느꼈던 증상이 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돼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건협 광주전남지부는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체육회, 조선대 등 대학 운동부에 3억여원 지원

조선대에 1억7000만원 전달
전국체전 대비 훈련 강화

광주광역시체육회가 전국체육대회 상위 입상과 지역 대학운동부 경기력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열악한 지방대학 체육환경을 고려해, 전지훈련과 장비 구입 등 실질적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3일 오후 조선대학교 총장실에서 '2025년 대학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금 전달식'을 열고, 조선대 운동부에 1억7000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전갑수 광주체육회장과 김춘성 조선대 총장, 운동부 지도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금은 2025년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대표팀 소속 대학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비용으로,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전달됐다.

시체육회는 조선대를 포함한 8개 대학의 22개 종목 300여명의 선수들에게 총 3억10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선수 수와 전년도 체전 성적 등을 고려해 배분됐으며, 전지훈련, 훈련 장비 구입, 훈련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 지역 대학팀은 지난해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26개의 메달을 획득, 지역의 체육 경쟁력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조선대 축구팀은 31년 만에 결승에 진출해 준우승, 광주여대 양궁팀은 타이기록과 함께 2관왕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전갑수 광주체육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학 스포츠를 지켜내고 있는 학교 측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하고, 팀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광주시체육회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 위기임산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위기임산부 광주지역 상담기관인 엔젤하우스에 방문해 성장앨범 제작을 지원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사진)

14일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엔젤하우스(광주 남구 소재)는 광주광역시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으로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와 출생아동에게 편안한 숙식과 정서·문화적 서비스를 통해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공단은 광주 엔젤하우스 외에도 익산 기쁨의 하우스, 목포 성모의 집, 제주 애서원 등 관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대상으로 돌잔치 및 성장앨범 지원과 철분제, 분유 등 산모와 아동을 위한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이영희 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광주 동부소방, 5·18행사 대비 화재안전조사

광주 동부소방은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동구 관할 내에 위치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수신기, 가압송수장치, 피난시설 스위치·밸브 차단·폐쇄 여부 △비상구 및 출입구의 폐쇄·훼손 여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 상태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일이 소요되는 항목은 기념행사 전까지 보완해 전반적인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동부소방은 행사 전날인 오는 17일 오후 3시부터, 당일인 18일 오후 9시까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이 기간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력 투입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준명 기자

광산구, 제4회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한마당 준비 돌입

1차 실무자회의 개최
21개 기관 455명 참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생활체육 축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사진)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3일 하남혁신지원센터 2층 누리터에서 '제4회 광산구 장애인생활체육 어울림한마당' 1차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참가기관 실무자 대표, 체육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대회 운영 방향과 세부 준비 사항을 논의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오는 6월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21개 기관 455명(이용자 295명, 종사자 160명)이 참가를 확정지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광산구장애인체육회는 규모 확장에 발맞춰 입장상과 종합시상 항목을 확대했으며, 인간컬링, 다트바운스 등 새로운 종목을 추가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대회 성격을 단순 체육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체험과 참여를 통한 소통의 장으로 확장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양오열 수석부회장은 "해마다 참가기관이 늘고 있는 것은 대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와 참여 열기를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며 "작년에는 화환 대신 쌀을 후원받아 광산구 장애인단체에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열었고, 올해도 모두에게 기억에 남을 따뜻한 대회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환 기자

광주경총, 회원사 노동 현안 기업 대응 교육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3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회원사와 비회원사 54명을 대상으로 2025년 근로감독 및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기업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교육은 산업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노사 간의 갈등이 우려됨에 따라 2025년 근로감독 방향 및 최근 통상임금 이슈를 전달하고 회원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상반기 종합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장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돼 있어 개별사업장에서는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근로감독 기준과 실제 수검사례 및 관리방안을 공유해 안전하고 불안요인이 없는 사업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 서구 화운유치원, 서부소방 견학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 어린이들이 집 근처 소방서를 견학하며, 소방관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감사를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사진)

지난 13일 서부소방은 이날 오전 화운유치원 원아 72명을 대상으로 화정119안전센터 견학과 함께 소방안전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기초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소방관 역할 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원아들은 소방차와 장비를 신기한 듯 살펴보고, 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건네며 안전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서부소방 관계자는 "소방서 방문을 통한 체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119안전센터로 전화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